

소프라노 김영지 독창회

17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김영지(사진·초당대 음악학과) 독창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초당대 개교 15주년 축하 무대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김 씨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프랑스 가곡, 한국가곡 등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르디의 오페라 '에르나니' 중 '에르나니여 함께 도망쳐요', 플라망의 '파리로의 여행',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사랑의 신이여 굽어 보시옵소서', 도니체티의 '나는 집을 짓고 싶네', 포레의 '낮은 이곳에', 김규환 곡 '간다 간다 하더니' 등이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수석 졸업한 김 씨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베르첼리 아카데미, 파라마 아카데미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안젤리카 카탈라니 등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피아노 반주는 전남대·미국 보스턴음대에서 수학한 동수정씨가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홀·리히텐슈타인 '팝아트' 진수 본다

지난해 열린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에서는 미술사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이색 장면이 연출됐다.

이 전시에는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마르크 샤갈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됐는데, 피카소의 '여인상'과 앤디 워홀의 '모택동'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했다. 20세기 최대의 거장 피카소와 앤디 워홀을 미술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작가로 평가, 비교 전시한 것이다.

세계적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1928~1987)과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1923~1997)의 명작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16~30일 광주신세계갤러리, 무료.

보통가액만 100억원이 넘고, 실 거래가 200~300억원인 두 거장의 작품 36점을 선보인다.

국내에서 팝아트의 양대 산맥인 이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제미술시장 분석기관이 해마다 발표하는 '비상 작가 톱10'에 항상 이름을 올려놓

16~30일 광주신세계갤러리 두 거장의 작품 36점 선보여



리히텐슈타인 작 '발과 손'

을 정도로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모택동' '리즈 테일러' 등 유명한 연작과 '달려 사인' '강아지' '꽃' 등 일상의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 27점을 전시한다.

미국 출신인 앤디 워홀은 예술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팝아트의 가장 빛나는 스타로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마릴린 먼로' '모택동' 등의 작품을 통해 명성을 얻은 예술가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들은 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1980년대 제작된 작품이며, 영화, 광고, 패션 등 수많은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재생, 반복했다. 그는 소비문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복제, 반복함으로써 물개성을 꼬집었다.

또 지난해 세상을 떠났던 그가 했던 삼섬비자금사건 당시 '행복한 눈물'로 유명세를 탄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발과 손' 등 기하학적 추상을 담은 1970~80년대 작품 9점을 함께 선보인다.

리히텐슈타인은 광고, 만화, 신문, 잡지에서 빼낸 이미지를 변형해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든 작가이다. 그는 만화의 한 장면을 차용한 뒤 대상을 과색적으로 감싸고, 말풍선 등을 집어넣는 독특한 기법을 썼다. 1964년 작품인 '발과 손'은 바닥에 놓인 손을 밝고 있는 누군가의 발을 간략하게 표현했다.

광주신세계갤러리 윤준 규레이터는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미술 사조인 팝아트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음악학과 관현악 정기연주회

16일 광주문예회관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관현악 정기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황성규(사진) 교수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글린카의 '무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 등을 들려준다. 플루트의 이희영·노시진씨가 도플러의 '안단테와 론도 작품 25'를 협연



하며 튜바의 김상화, 첼로의 김난희는 각각 본 윌리엄스의 '튜바 협주곡'과 포피의 '헝가리 안 랍스디 작품 68' 협연무대를 갖는다. 문의 062-530-3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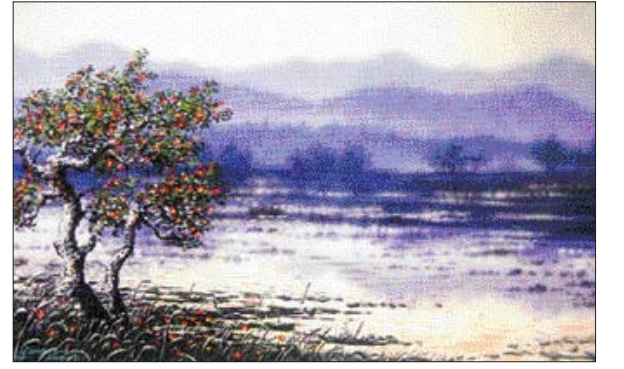
강남구씨 '내 마음의 풍경' 개인전

16~22일 무등갤러리

고즈넉한 새벽 강과 화사한 꽃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강남구씨가 16~22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내 마음의 풍경'을 주제로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 넘치는 신작을 선보인다.

파사체에 초점을 맞춰 배경을 흐릿하게 사진을 찍는 '아웃포커싱' 기법을 빌려와, 꽃을 도드라지게 그린 뒤 주변은 안개에 싸인 듯 희뿌연게 처리해 원근감을 살렸다.



'새벽강'

강씨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뒤 동경국제조형문화 트리엔날레, '아 대한민국전', '국제교감예술제'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철 시인 첫 시집

'머물지 않는 바람' 출간

꽃 가게를 운영하며 시 창작에 열중하고 있는 문재철(50·사진) 시인이 첫 시집 '머물지 않는 바람'을 출간했다.

시집은 고된 일용직 아버지의 일상을 꽃을 빚듯 아름답게 승화시킨 '아버지의 일상'을 비롯 126편의 시를 '꽃장수', '헌사' 등 총 6부로 나눠 엮었다. 특히 표제작을 담은 3부 '머물지



않는 바람'에는 '바람난 나무', '봄은 사랑의 마술사', '은혜나무 부부' 등 문재철의 시적 감수성이 한껏 매력을 발휘한 순수 서정시들이 가득하다. 문재철은 2006년 '문학예술' 봄 호 신인상 모집에 '바람' 등으로 당선돼 등단했으며 현재 문병관 시인의 시 정선기를 지어와 동호인들이 개설한 '서은문학연구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코리아·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연우회 정기연주회

16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연우회(회장 강양은) 정기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50번째 연주회인 이번 공연은 목포대 교수와 광주오페라단장을 역임한 지역 작곡가 김정수(사진·1936~1999)씨의 10주기를 맞아 김씨의 작품만으로 레퍼토리를 꾸렸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아라리오',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흐른 가락', '두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모자이크' 등 기악곡과 김영랑 시에 곡을 부친 '물 보면 흐르고', '황홀한 달빛' 등 성악곡을 선보인다. 연주자는 박형숙·김병·변성호·유정아·김도연·김영은·최재훈·김미옥·신정문·임영민·이재선·김남경·이재선씨 등이다. 문의 011-611-73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 Auction (K (주)국민법률경제) with contact number 0621351-8240 and 010-7203-1100. Services include real estate, securities, and other auctions.

Large table containing auction results for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land, buildings, and vehicl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Seoul. Columns include item name, location, and price.

• 상가물건 외 다수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